

가야희인곡



[해제]

<가야해인곡>은 작자 및 제작연대 미상의 규방가사 작품이다. 두루마리에 순국문 표기로 이 작품만이 펼쳐되어 있으며, 원전의 크기는 465*27cm이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계획했던 성주(星州)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를 유람한 내용을 쓴 것이므로 기행가사로도 볼 수 있다. 규방에서 오랜 세월동안 내조하며 살았던 작자는 자식을 다 키워 출가시키고 한가해지자 친구들과 가야산 해인사로 유람을 떠난다. 가야산이 있는 성주읍에 이르러서는 시택(媿宅) 세조(世祖)의 춘추제향(春秋祭享)을 언급하고 있고, 윤동(倫洞)에서는 친척들과 옛 친구를 만나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자는 원래 성주 지역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여섯으로 출발했던 여행 인원은 성주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합세하여 열한 명으로 늘어나고 본격적인 유람이 시작된다. 작품 중반은 기행가사답게 가야산 홍류동(紅流洞)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찬사가 주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야산에 은거했던 신라 문인 최치원의 자취를 더듬으며 인생무상의 소회를 풀어낸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해인사에 도착한 뒤 그 곳에서 느낀 감흥을 서술하고 있다. 이색적인 점은 승녀(僧女)들을 바라보는 작자의 시선이다. 작자는 여승의 아름다운 용모를 안타까워하며, 결혼하여 아들딸을 기르기를 권유하고, 그것이 사람이 지켜야 하는 윤기(倫紀)라고 설파한다. 남편을 내조하면서 자식들을 잘 길러낸 규방 아녀자로서의 자부심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작품에 중국 고사와 문인(文人), 시문(詩文)들이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작자는 상당 수준의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원문]

가야해인곡

우리성주 가야산은 산수지중 조종요
 가야산의 희인사는 사찰지중 증가이라
 산슈경치 사찰구경 한번보기 원히스나
 규문안의 잠긴몸이 빅날길리 업서더라
 음양시킵 변히지고 유슈광음 흘너가서
 어는다시 노경이라 빅수풍상 헛날일지
 다쇼자여 성최하고 음식방적 전장하니
 청풍명월 조와라고 다희몸이 한가하다
 옛사람을 쏘볼지면 당나라의 향자평은
 남훈여가 마천후의 천후강산 놀앗서니
 남여분별 잇슬망정 사람사업 일반이라
 어와우리 벗닌니야 우리들도 노라보식
 오릭두고 경영하든 가야희인 구경하세
 칠십노구 압시우고 죽장집고 망혀신고
 여섯동행 작반하니 우풍유 가관일새
 식는마참 모춘삼월 바람말고 히가길다
 널고푸른 들판우익 초록지비 나라들지
 낙화편편 헛터져서 바람짜라 춤을추니

말고푸른 반공중의 종달시가 높히썰지
 먼디산의 아주량이 가물가물 사라진다
 버들장막 김흔속의 노리하년 저외소리
 저의동무 그리온가 환우성이 분명하다
 밋천바람 부지말나 빅설갓튼 보들가지
 늘근것도 설싸커늘 무삼일노 더러트려
 허공주천 면면고딧 지항업시 보닐것가
 간곳마다 허이나니 나물키난 아히들의
 곡조한 버들피라 봄노리가 정영하다
 흥체조흔 우리일헝 노리허며 우슴웃고
 압셔거이 되셔거니 피곤함을 이즐너라
 압히가난 저친구야 추군추군 쇠여가식
 되의오난 이동모야 다리힘을 울여주기
 성주읍을 지니설지 동원것헤 낚흔직실
 시딧세조 성산군의 춘추지향 차리나니
 수수천만 만은자손 침모허난 자리로다
 유촌갓말 석지닉셔 다다르니 딧기천은
 옛날부텀 유명허기 수시조키 흘너가닉
 물풀고 모리힌딧 썸을꾸는 저딧구야
 놀나씩여 날지마라 너를잡을 닌아니다
 여흘우의 안진어웅 낙시줄을 주지마라
 빅옥갓치 췌는은어 보는거시 더욱조타
 잠관셔셔 방황타가 만지장터 이러르니
 동북간을 향하야셔 닌물허나 가역지고
 아온하기 열일동닉 안자듯든 윤동일세
 우리일헝 가난총중 포집쌀닉 여잇스니
 그리하든 모여지정 과문할슈 업난지터요
 함기동헝 허엿다가 닌들아니 갈수업닉
 오늘사기 그러할썸 인정만은 두김실네
 그전붓텀 편지하며 허인거림 잇거들냥
 저의집의 드러오라 부탁부탁 정영하니
 간절허기 정흔정경 엿지하녀 빅반하래
 기괴허기 좌우사람 도라보며 허허일성 딧소하고
 불근석양 등의지고 동구문의 당도하이
 직중질여 삼중손너 미찰드시 닌다라셔
 옷자락을 부여잡고 저의집을 인도허닉
 그린회포 설화허며 여러날을 유련흘지
 수록진미 반찬이요 산중별미 처소로다

진미이며 별미이와 마른창자 살씨우니
 조홀듯도 허다만은 나의마암 불안하다
 노소친구 차자와서 일변여구 반기면서
 서로보기 느진거살 익석하기 녀이쏘다
 사돈팔촌 찾난것도 분수호불 잇난지라
 붓그럽고 우서거날 인심조흔 친구님닉
 이집저집 서로불너 음식지공 사치하고
 담소자약 은근하나 세상물정 야박한디
 흥선되기 크지업다 압흔다리 편히쇠어
 히인길얼 써나설지 풍정조흔 셋친구가
 히한하기 동헝되고 관옥갓흔 두최긱이
 고마웁기 압헝셔나 열한사람 우리헝차
 누가감히 훌미허리 압히산이 쌍겨주고
 되의산니 미러줄지 수심이를 헝코나서
 청산녹수 명여한데 갑속하기 열인산곡
 흥유동이 여기로다 경기절승 대일흥
 말노듯고 침음보니 멀니안자 싱각흔든
 나의가삼 시현하다 처다보니 유수로다
 유수의서 발을씻고 절벽아리 잠관쇠어
 말근물을 히롱하며 촌촌전진 드러갈지
 청천벽일 천동소리 산곡간니 진동하며
 난디업는 옥무지기 석벽우의 갈엇스니
 흥유동셔 필호놓흔 빅척폭포 예아니냐
 폭포줄지 써러져서 바위틈의 부딪칠지
 옥등인가 눈몽친가 자시보니 물질일세
 의시은하 낙구천을 옛글노만 보앗더니
 오날와서 싱각하니 여기두고 일넛도다
 낙화담과 학사뒤로 차점차점 드러가니
 압되의로 수석이요 좌우의난 송닙이라
 수석송입 장한고디 슈간정자 정결하니
 최고운운의 노든자최 흥유정이 여기로다
 물어보자 흥유정아 고금일을 키아리라
 고은선싱 어딴가고 비인정자 남엇는고
 신선되여 가신후의 언지다시 오섯든야
 이다음의 어느누가 예전일을 못거들냥
 나도여기 왓드라고 부딪함씨 일너다고
 산천물석 살펴보니 고금변천 엽긱마난
 엿지하야 우리인싱 하망성쇠 무상하여

옛사람은 지늬가고 덕의사람 다시올제
 지늬갓는 옛사람은 덕의오난사람 불슈업고
 다시오는 후인들은 옛사람을 불슈업닉
 고인금인 한갓되기 가고오기 분쥬하니
 이서상은 쥬막이요 인인칭들은 손이로다
 주막차자 들온손니 지늬가며 그만니지
 히가가고 날이가면 알사람 그누구랴
 안타가운 군소리를 바람결의 썬지노니
 소회만은 흥유정아 나의부탁 잊지마라
 만은회포 진정하고 쏘흔거름 드러가니
 골골마다 션경이요 구비구비 승지로다
 명사십예 히당화야 관동풍경 동구십예
 웃은창송 흥유동은 엇드하랴 복성솟치마난
 두견화가 저나리니 흥유동이 더욱쫓타
 괴괴석 빈틈업시 지명하녀 삭인것은
 지자가인 문장명필 지늬갓는 표적이요
 썬뉘물결 소리쳐서 밤낮으로 호통하니
 말석만은 인간시비 듯지말나 함이로다
 흔거름의 총찬하고 두거름의 놀나면서
 물구비를 엮히기고 산허리를 도라셔니
 기특하다 히인사가 기다리고 셔셔잇닉
 한양도읍 오백년의 너의신세 처량컷만
 신타천연 장한흔적 지금까지 남앗구나
 불근기동 푸른큰법당과 전근암자 위치분별 음속하다
 덕자비와 셔가세가 세존감동연을 기리치고
 장삼님은 늘근덕스 아미타불 염불하닉
 불상압히 분향하고 염불소리 듯고나니
 이세상의 근심걱정 흥노점설 덕는구나
 동셔편의 큰집들은 장판각이 여기이니
 히인사의 자랑써리 팔만장경 샤엳도다
 일기승여 압흘시워 승방지도 구경할지
 덕왕전과 나한과 칠성당과
 차리차리 지늬고셔 한암자의 도라드니
 놀나올사 만은여승 화용월덕 가석하다
 권하노니 여승들아 니팔청춘 허송말고
 군자호구 썬이되여 아아들쌀을 길너보라
 조흔가정 차려노코 후덕하기 사라가면
 거룩하신 부처님도 너의들을 도으리라

좌우풍경 식롭기로 난간우의 비겨보니
 흰소갈과 불근가사 북연암의 왕니하고
 불근소과 푸른송씩 최작봉이 화려하다
 좌첨우고 황홀하기 그림속의 셋난동안
 저문경쇠 은은하며 산근늘이 짓터진다
 저른작지 질기슬고 속소라자 도라오니
 등딛히려 올인석반 치더욱 선미로다
 젓젓산문 밤이드니 밤경치도 가관일세
 월출동산 명낭하니 유리세계 녀기로다
 천지만물 고요하니 퍽평세기 여기런가
 방울방울풍정 오날밤의 두병술을 비와닉니
 도연명이 닌아인딛 술먹기를 허락하니
 고소성위 한산사의 야반종성 올니닉니
 풍교사가 아니것만 어느문장 쏘잇는가
 쓴세상의 사람드라 부귀영화 싸흠말고
 조흔인연 잇거들낭 녀기와셔 쇠여보송
 옥국선인 소동파는 금산사의 머무를제
 옥씩슬너 중을주고 소갈하나 바다스며
 만고명필 왕히지는 능인사의 초자가셔
 소요편을 이논홀지 써나기를 술허하니
 한가하기 노든자최 사람마다 일만일세
 가소롭다 저승녀는 산동승지 차자들지
 부모쳐자 중훈윤기 바리기는 무삼일고
 천당만일 이슬지면 악한사람 디갈지니
 하날우히 조흔천당 너의들만 올나가고
 유향불의 몹슬지옥 속인들만 드갈소가
 에러커니 저러커니 승녀예법 그런지라
 경기차자 여운닉가 비평하기 부지럽다
 하로밤을 묵고나셔 우리일헝 써나올제
 은옥갓치 말근물과 그림갓치 고운산을
 얼는보고 지닉자니 앗가웁기 총양업다
 우리들이 도라가셔 암암하기 싱각하면
 산천슈석 나의얼골 허리굽고 늘근장송
 언덕우익 비겨셔셔 우리들을 전송하고
 도라갈줄 모라더라 쏜의와셔 빼치리라
 히인사야 잘잇거라 흥유동아 잘잇거러
 오날너를 니별하며 언지다시 만나볼가
 너는본시 진둥히려 날을차자 안올지요

일후다시 언지라도 너안가면 못보리라
너가면 보지마난 남은근녁 열마이라
마음혼자 절머여서 뒷날기약 부탁노라
거름거름 못이져서 되로돌여 바라보니
이월십칠일날 다텔다

[현대역]

가야해인곡

우리 성주(星州) 가야산(伽倻山)1은 산수(山水) 가운데 조종(祖宗)2이요
 가야산(伽倻山)의 해인사(海印寺)3는 사찰(寺刹) 가운데 종가(宗家)라
 산수 경치 사찰 구경 한 번 해보기를 원했으나
 규문(閨門)4 안에 잠긴 몸이 벗어날 길이 없었더라
 음양(陰陽) 시대(時態)5 변하고 유수광음(流水光陰)6 흘러가서
 어느덧 노경(老境)7이라 백수풍상(白首風霜)8 흘날리니
 많고 적은 자녀 모두 결혼시켜 음식과 방적(紡績) 전장(傳掌)9하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즐기고 내 한 몸이 한가하다
 옛사람을 본보자면 당나라의 향자평(向子平)10
 남혼여가(男婚女嫁)11 마친 뒤에 천하 강산에서 놀았으니
 남녀 분별 있을망정 사람의 일이 마찬가지로
 어와 우리 벗님네야 우리들도 놀아보세
 오래 두고 경영(經營)하던12 가야산 해인사를 구경가세
 칠십 노구(老軀)13 앞세우고 죽장(竹杖)14 짚고 망혜(芒鞋)15 신고
 여섯 동행(同行) 작반(作伴)16하니 우리 풍류 가관(可觀)일세
 때는 마침 모춘(暮春)17 삼월 바람은 맑고 해가 길다
 넓고 푸른 들판위에 초록 제비 나라들고
 낙화(落花) 편편(翩翩)18 흩어져서 바람 따라 춤을 추니
 맑고 푸른 반공중(半空中)19에 종달새가 높이 뜨고
 먼 데 산에 아지랑이 가물가물 사라진다
 버들 장막 깊은 속에 노래하는 저 꾀꼬리
 저의 동무 그리운가 환우성(喚友聲)20이 분명하다
 미친바람 불지 말라 백설(白雪) 같은 버들가지
 늙은 것도 서럽거늘 무슨 일로 떨어트려
 허공주천(虛空朱天)21 여러 곳에 지향(指向)22없이 보낼 것인가
 간 곳마다 들리나니 나물 캐는 아이들의
 한 곡조 버들피리라 봄노래가 정녕(丁寧)23하다
 흥치(興致)24 좋은 우리 일행 노래하며 웃음 웃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피곤함을 잊겠구나
 앞에 가는 저 친구야 추군추군 쉬어 가세
 뒤에 오는 이 동무야 다리 힘을 올려 주게
 성주읍(星州邑)을 지날 적에 동원 곁에 높은 재실(齋室)25
 시택(媿宅) 세조(世祖)26 성산군의 춘추제향(春秋祭享)27 차리나니
 수수천만(數數千萬)28 많은 자손 침모(瞻慕)29하는 자리로다
 유촌의 가장자리 끝을 빨리 지나서 다다른 큰 개천은

옛날부터 유명한 것처럼 수시로 넉넉하게 흘러가니
 물 푸르고 모래 흰데 꿈을 꾸는 저 백구(白鷗)야
 놀라 깨어서 날지 마라 너를 잡을 내 아니다
 여흠30 위에 앉은 어옹(漁翁) 낚시줄을 주지마라
 백옥(白玉)같이 뛰는 은어(銀魚) 보는 것이 더욱 좋다
 잠깐 서서 방황하다가 만지장터에 이르니
 동북(東北) 사이를 향하여서 냇물 하나 흐르고
 아온하기 열일 동네 안자서 듣던 윤동(倫洞)31일세
 우리 일행이 가는 중에 포집 딸네가 여기 있으니
 그리워하던 모녀지정(母女之情)에 과문(過聞)32할 수는 없는 터요
 함께 동행 하였다가 낸 들 아니 갈 수 없네
 오늘 사기 그러할 뿐 인정(人情) 많은 두김실네
 그 전부터 편지하며 오는 걸음 있거들랑
 저의 집에 들어오라 부탁부탁 정녕(丁寧)33하니
 간절하기 정한 정경(情景) 어찌하여 배반(背反)하리
 기괴하게 좌우에 있는 사람 돌아보며 허허 일성(一聲) 대소(大笑)34하고
 붉은 석양 등에 지고 동구문에 당도(當到)하니
 재종질녀(再從姪女)35 삼종손녀(三從孫女)36 미칠 듯이 내달아서
 옷자락을 부여잡고 저의 집으로 인도(引導)하네
 그리던 회포(懷抱) 설화(說話)하며37 여러 날을 유련(留連)38하니
 수록진미(水陸珍味) 반찬이요 산중별미(山中別味) 채소로다
 진미(珍味)와 별미(別味)로 마른 창자 살찌우니
 좋을 듯도 하다마는 나의 마음 불안하다
 노소(老少) 친구 찾아와서 일변여구(一變如舊)39 반기면서
 서로 보는 것이 늦은 것을 애석(哀惜)40하게 여기도다
 사든 팔촌 찾는 것도 분수(分數)와 호불(好不)41이 있는지라
 부끄럽고 우습거늘 인심 좋은 친구님네
 이집 저집 서로 불러 음식지공(飲食支供)42 사치(奢侈)43하고
 담소자약(談笑自若)44 은근하나 세상물정(世上物情) 야박한데
 흥선(欽羨)45될 만하기에 그지없다 아픈 다리 편히 쉬어
 가던 길을 떠날 적에 풍정(風情)46 좋은 세 친구가
 희한(稀罕)하게 동행이 되고 관옥(冠玉)47같은 두최객이
 고맙게도 앞에 서니 열 한 사람 우리 행차
 누가 감히 홀대(忽待)하리 앞에 산이 당겨주고
 뒤에 산이 밀어줄지 수심(水滯)48을 지나고 나서
 청산녹수(靑山綠水) 명려(明麗)49한데 깊숙하기가 열인 산골짜기
 홍류동(紅流洞)50이 여기로다 경개절승(景概絶勝)51 저 이름
 말로만 듣고 처음 보니 멀리 앉아 생각하던

나의 가슴 시원하다 쳐다보니 유수(流水)로다
 유수(流水)에서 발을 씻고 절벽 아래 잠깐 쉬어
 맑은 물을 희롱(戲弄)하며 촌촌전진(寸寸前進)52 들어갈 때
 청천백일(青天白日)53에 천둥소리 산골짜기 사이에 진동하며
 난데없는54 옥(玉)무지개55 석벽(石壁) 위에 걸렸으니
 홍류동(紅流洞) 이름 높은 백척(百尺) 폭포가 여기 아니냐
 폭포 줄기 떨어져서 바위틈에 부딪칠 때
 옥등(玉燈)인가 눈뭉친가 자세히 보니 물줄기일세
 의시은하(疑是銀河) 낙구천(落九天)56을 옛 글로만 보았더니
 오늘 와서 생각하니 여기를 두고 일렀도다
 낙화담(落花潭)57과 학사대(學士臺)58로 차츰차츰 들어가니
 앞뒤로 수석(壽石)이요 좌우(左右)에는 솔잎이라
 수석 솔잎 성대한 곳에 수간정자(數間亭子)59 정결(淨潔)하니
 최고운(崔孤雲)60의 놀던 자취 홍류정(紅流亭)이 여기로다
 물어보자 홍류정(紅流亭)아 고금(古今) 일을 말하여라
 고운(孤雲) 선생 어디 가고 빈 정자(亭子)만 남았는고
 신선(神仙) 되어 가신 뒤에 언제 다시 오셨드냐
 이 다음에 어느 누가 예전 일을 묻거들랑
 나도 여기 왔더라고 부디 함께 말해다오
 산천물색(山川物色)61 살펴보니 고금변천(古今變遷)62 없건마는
 어찌하여 우리 인생 흥망성쇠(興亡盛衰)63 무상(無常)64하여
 옛사람은 지나가고 뒷사람 다시 올 제
 지나간 옛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 볼 수 없고
 다시 오는 후인(後人)들은 옛사람을 볼 수 없네
 고인(古人) 금인(今人) 한갓되이65 가고 오기 분주하니
 이 세상은 주막(酒幕)이요 사람들은 손님이로다
 주막 찾아 들어온 손님이 지나가면 그만이지
 해가 가고 날이 가면 알 사람 그 누구랴
 안타까운 군소리를 바람결에 던지나니
 소회(所懷)66 많은 홍류정(紅流亭)아 나의 부탁 잊지 마라
 많은 회포(懷抱) 진정하고 또 한 걸음 들어가니
 골골마다仙境(仙境)67이요 굽이굽이 승지(勝地)68로다
 명사십리(明沙十里)69에 해당화(海棠花)아 관동풍경(關東風景) 동구십에 웃은 창송 홍류동(紅流洞)은
 어떠한라 복성꽃이지만
 두견화(杜鵑花)70가 저서 날리니 홍류동(紅流洞)이 더욱 좋다
 기괴석(奇怪石)71에 빈틈없이 지명하여 새긴 것은
 재자가인(才子佳人)72 문장명필(文章名筆) 지나간 표적(表迹) 73이요
 성낸 물결 소리쳐서 밤낮으로 호통하니

말썽 많은 인간시비(人間是非) 듣지 말라 함이로다
 한 걸음에 칭찬하고 두 걸음에 놀라면서
 물굽이를 옆에 끼고 산허리를 돌아서니
 기특하다 해인사가 기다리고 서서 있네
 한양도읍 오백년에 너의 신세 처량하건만
 믿을 만하다 천연의 장한 흔적 지금까지 남아있구나
 붉은 기둥 푸른 큰 법당과 전근 암자(庵子) 위치분별이 엄속하다
 대자비(大慈悲)74와 석가세존(釋迦世尊)75 감중련(坎中連)76을 가르치고
 장상(長衫)77 입은 늙은 대사(大師) 아미타불(阿彌陀佛) 영불하네
 불상(佛像) 앞에 분향(焚香)78하고 영불소리 듣고 나니
 이 세상의 근심 걱정 홍로점설(紅爐點雪)79 되는구나
 동서편(東西便)의 큰 집 들은 장판각(藏板閣)80이 여기이니
 해인사의 자랑거리 팔만장경(八萬藏經)81 쌓였도다
 일개(一介) 승려 앞세워서 승방(僧房) 지도(指導) 구경할지
 대왕전82과 나한(羅漢)83과 칠성당(七星堂)84과
 차례차례 지나고서 한 암자(庵子)에 돌아드니
 놀랍게도 많은 여승(女僧) 화용월태(花容月態)85 가석(可惜)86하다
 권하노니 여승(女僧)들아 이팔청춘(二八青春) 허송(虛送)하지 말고
 군자호구(君子好逑)87 짝이 되어 아들딸을 길러보라
 좋은 가정 차려 놓고 후덕(厚德)하게 살아가면
 거룩하신 부처님도 너희들을 도우리라
 좌우 풍경 새롭기로 난간(欄干) 위에 비스듬하게 기대니
 흰 고깔과 붉은 가사(袈裟)88 백련암(白蓮庵)에 왕래(往來)하고
 붉은 꽃과 푸른 송백(松柏)89 최작봉이 화려하다
 좌첨우고(左瞻右顧)90 황홀한 그림속에 서 있는 동안
 저물 무렵 경쇠91소리 은은하며 산그늘이 짙어 진다
 짧은 작지 길게 끌고 숙소로 돌아오니
 등대(等待)92하던 하녀가 올린 석반(夕飯)93 채(菜) 더욱 선미(鮮味)94로다
 적적한 산문(山門)95에 밤이 드니 방경치도 가관(可觀)96일세
 월출동산(月出東山)97 명랑(明朗)98하니 유리세계(瑠璃世界)99가 여기로다
 천지만물(天地萬物) 고요하니 태평세계가 여기인가
 방울방울 풍정(風情)100 오늘밤에 두 병 술을 비워내니
 도연명(陶淵明)101이 내 아닌데 술 먹기를 허락하니
 고소성외(姑蘇城外) 한산사(寒山寺)102에 야반종성(夜半鐘聲) 울리나니
 풍교(楓橋)103의 일이 아니건만 어느 문장이 또 있겠는가
 뜬 세상에 사람들아 부귀영화(富貴榮華) 싸움 말고
 좋은 인연 있거들랑 여기에 와서 쉬어 보소
 옥국 선인(仙人) 소동파(蘇東坡)104는 금산사(金山寺)105에 머무를 때

옥띠106 끌러 중을 주고 고깔 하나 받았으며
만고명필(萬古名筆) 왕희지(王羲之)107는 능인사(能人寺) 찾아가서
소요편(逍遙篇)을 의논할 제108 떠나기를 싫어하니
한가하게 놀던 자취 사람마다 일만(一萬)일세
가소롭다 저 승녀(僧女)는 산중승지(山中勝地) 찾아들지
부모처자(父母妻子) 중한 윤기(倫紀)109 리기는 무슨 일인가
천당(天堂)이 만일 있다면 악한 사람 거기 갈 것이니
하늘 위에 좋은 천당(天堂) 너희들만 올라가고
유황불의 몫쓸 지옥(地獄) 속인(俗人)들만 들어갈까
이러커니 저러커니 승녀(僧女) 예법(禮法)이 그런지라
경개(景概) 찾아 여기에 온 내가 비평(批評)하기 부질없다
하룻밤을 묵고 나서 우리 일행 떠나올 때
은옥(銀玉)같이 맑은 물과 그림같이 고운 산을
열른 보고 지나자니 아깝기가 측량(測量)없다110
우리들이 돌아가서 암암(暗暗)111하게 생각하면
산천수석(山川樹石) 나의 얼굴 허리 굽고 늙은 장송(長松)
언덕 위에 빚겨 서서 우리들을 전송(餞送)112하고
돌아갈 줄 모르더라 꿈에 와서 비치리라
해인사(海印寺)야 잘 있거라 홍류동(紅流洞)야 잘 있거라
오늘 너를 이별하면 언제 다시 만나볼가
너는 본디 진중(鎭重)113하여 나를 찾아 안 올 것이요
이후 다시 언제라도 내가 안 가면 못 보리라
내가 가면 보겠지만 남은 근력(筋力) 얼마 없어
마음만 혼자 젊어있어 뒷날 기약(期約) 부탁하노라
걸음걸음 못 잊어서 뒤로 돌아 바라보니
이월 십칠일날 다 썼다

[각주]

- 1) 가야산(伽倻山) : 경상북도 성주군과 경상남도 합천군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430m. 소의 머리와 모 습이 비슷하다고 하여 우두산(牛頭山)이라고 불림.
- 2) 조종(祖宗) : ① 시조가 되는 조상. ②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 해인사(海印寺)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 중턱에 있는 절. 국보 32호인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음.
- 4) 규문(閨門)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규중(閨中)과 같은 말.
- 5) 시태(時態) : 그 당시 세상의 형편.
- 6) 유수광음(流水光陰) :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른 세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7) 노경(老境) : 늙어서 나이가 많은 때.
- 8) 백수풍상(白首風霜) : 늘그막에 겪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9) 전장(傳掌) :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말아보던 일이나 물건을 넘겨서 말김.
- 10) 향자평(向子平) : 후한(後漢) 사람. 자평(子平)은 향장(向長)의 자(字). 자녀(子女)의 가취(嫁娶)가 끝나자 오악(五嶽) 명산(名山)에서 숨어 살았음.
- 11) 남혼여가(男婚女嫁) : 아들은 장가들고 딸은 시집간다는 뜻으로, 자녀의 혼인을 이르는 말.
- 12) 경영(經營) : ①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 ②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 나감. 이 작품에서는 ②의 뜻으로 쓰였음.
- 13) 노구(老軀) : 늙은 몸.
- 14) 죽장(竹杖) : 대 지팡이.
- 15) 망혜(芒鞋) : 미투리. 삼이나 노 따위로 만든 짚신.
- 16) 작반(作伴) : 동행자나 동무로 삼음.
- 17) 모춘(暮春) : 늦은 봄. 음력 3월을 달리 이르는 말.
- 18) 편편(翩翩) : 나는 모양이 가볍고 날쌘.
- 19) 반공중(半空中) :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 20) 환우성(喚友聲) : 벗을 부르는 소리.
- 21) 허공주천(虛空朱天) : 텅 빈 하늘. 공중.
- 22) 지향(指向) : 걱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감. 또는 그 방향.
- 23) 정녕(丁寧) : 조금도 틀림없이 확실함. 또는 더 이를 데 없이 정말로 꼭.
- 24) 흥치(興致) : 흥과 운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5) 재실(齋室) :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
- 26) 세조(世祖) : 조상.
- 27) 춘추제향(春秋祭享) : 봄, 가을로 사당에서 올리는 제사.
- 28) 수수천만(數數千萬)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
- 29) 첨모(瞻慕) : 우러러 사모함.
- 30) 여흘 : 여울의 옛말. 여울은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지칭함.
- 31) 윤동(倫洞) : 성주(星州)군 수륜면에 있는 마을.
- 32) 과문(過聞) : 아는 사람의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리지 아니함. 과문불입(過門不入)과 같은 말.

- 33) 정녕(丁寧) : 조금도 틀림없이 확실함. 또는 더 이를 데 없이 정말로 꼭.
- 34) 대소(大笑) : 크게 웃음.
- 35) 재종질녀(再從姪女) : 육촌 형제의 딸.
- 36) 삼종손녀(三從孫女) : 칠촌 조카의 딸.
- 37) 설화(說話)하며 : 마주 대하여 이야기 하며.
- 38) 유련(留連) : 계속 머무름.
- 39) 일변여구(一變如舊) : (모양이나 상태가) 아주 달라지기도 했고, 옛날과 같기도 함.
- 40) 애석(哀惜) : 슬프고 안타까움.
- 41) 호불(好不) : 좋고 나쁨.
- 42) 음식지공(飲食支供) : 음식을 대접하여 받듦.
- 43) 사치(奢侈) :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씬.
- 44) 담소자약(談笑自若) : 특별한 상황(근심이나 놀라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도 보통 때와 같이 웃고 이야기함.
- 45) 흠선(欽羨) : 우러러 공경하고 부러워 함.
- 46) 풍정(風情) : 풍치(風致), 즉 격에 맞는 멋이 있는 모습.
- 47) 관옥(冠玉) : 관(冠)의 앞을 꾸미는 옥(玉). 그 옥같이 맑고 깨끗하며 강한 느낌을 준다는 뜻에서, 잘 생기고 아름다운 사내의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8) 수심(水滯) : 물가.
- 49) 명려(明麗) : 맑고 고움.
- 50) 홍류동(紅流洞) : 가야산에 있는 골짜기 이름. 해인사 골을 속칭 '홍류동(홍유동)'이라고 하는데, 주변 경관이 매우 빼어남.
- 51) 경개절승(景概絶勝) : 경치가 비할 데 없이 빼어나게 좋음.
- 52) 촌촌전진(寸寸前進) : 한 치 한 치 더듬어 나아간다는 뜻으로, 매우 더딘 속도로 전진함을 이르는 말.
- 53) 청천백일(靑天白日) : 하늘이 맑게 갠 대낮.
- 54) 난데없는 : 갑자기 불쑥 나타나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 55) 옥(玉)무지개 : 빛이 고운 무지개.
- 56) 의시은하(疑是銀河)낙구천(落九天) : 이백(李白)이 지은 〈노산폭포(盧山瀑布)〉 시(詩)의 한 구절. (모습이 마치)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뜻임.
- 57) 낙화담(落花潭) : 가야산 홍류동 계곡에 있는 못.
- 58) 학사대(學士臺) : 신라 최치원이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가야산에 은거할 때 찾아와 지인들과 담론을 즐기고 시를 지으며 즐기던 곳으로 해인사 북서쪽에 있음.
- 59) 수간정자(數間亭子) : 몇 칸 안 되는 작은 정자.
- 60) 최고운(崔孤雲) : 통일 신라 말기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을 말함. 고운은 그의 자(字). 12세에 입당(入唐)하여 과거에 급제, 많은 벼슬을 지냈으며,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으로 이름을 떨쳤음.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각지를 유랑하였고 만년에는 가야산 해인사에 머물렀음.
- 61) 산천물색(山川物色) : 자연의 경치. 산천경개(山川景概)와 같은 말.
- 62) 고금변천(古今變遷) : 예전부터 지금까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함.

- 63) 흥망성쇠(興亡盛衰) :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
- 64) 무상(無常) : 덧없음.
- 65) 한갓되이 : 헛되이. 겨우 하찮은 것밖에 안 되게.
- 66) 소회(所懷)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 67) 선경(仙境) :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을 이르는 말.
- 68) 승지(勝地) : 경치가 매우 좋은 곳.
- 69) 명사십리(明沙十里) : 함경남도 원산시의 동남쪽 약 4km 지점에 있는 모래톱. 모래가 곱고 부드러운 해수욕장과 해당화로 유명함.
- 70) 두견화(杜鵑花) : 진달래꽃.
- 71) 기괴석(奇怪石) : 기이하고 괴상하게 생긴 돌.
- 72) 재자가인(才子佳人) : 재주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 73) 표적(表迹) : 겉으로 드러난 자취.
- 74) 대자비(大慈悲) : 넓고 커서 끝이 없는 부처와 보살의 자비. 대자대비(大慈大悲)와 같은 말.
- 75) 석가세존(釋迦世尊) : 석가모니를 높여 이르는 말.
- 76) 감중련(坎中連) : 팔괘(八卦)의 하나인 감괘(坎卦)의 상형을 이르는 말.
- 77) 장삼(長衫) :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든 승려의 옷.
- 78) 분향(焚香) : 향을 피움.
- 79) 홍로점설(紅爐點雪) : 빨갛게 달아오른 화롯불에 떨어져 녹는 눈송이. 사욕(私慾)이나 의혹(疑惑)이 일시에 꺼져 없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홍로상일점설(紅爐上一點雪)과 같은 말.
- 80) 장판각(藏板閣) : 해인사 장경판전(藏經板殿)을 이룸.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임. 크기와 양식이 비슷한 2채의 건물이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남쪽 건물은
- 81) 팔만장경(八萬藏經) :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고려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에 걸쳐 완성한 대장경.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경판(經板)의 수가 8만 1258판에 이르며 현재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음.
- 82) 대왕전 : 대웅전(大雄殿).
- 83) 나한(羅漢) : 생사를 이미 초월하여 배울 만한 법도가 없게 된 경지의 부처. 아라한과 같은 말. 보통 사찰에서는 나한전(羅漢殿)을 뒤 십육 나한이나 오백 나한을 봉안함.
- 84) 칠성당(七星堂) : 칠원성군(七元星君)을 주신으로 모신 건물. 칠원성군(북두칠성)은 북두(北斗)의 일곱 성군임.
- 85) 화용월태(花容月態)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 86) 가석(可惜) : 몹시 아까움.
- 87) 군자호구(君子好逑) : 군자의 좋은 짝. 『시경(詩經)』 국풍(國風) 주남편(周南篇)
- 88) 가사(袈裟) : 승려가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의(法衣).
- 89) 송백(松柏) : 소나무와 잣나무.
- 90) 좌첨우고(左瞻右顧) :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돌아봄. 즉 이쪽 저쪽을 바라봄.
- 91) 경쇠 : 놋으로 주발과 같이 만들어, 복판에 구멍을 뚫고 자루를 달아 노루 뿔 따위로 쳐 소리를 내는 불전 기구.
- 92) 등대(等待) :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 93) 석반(夕飯) : 저녁밥.
- 94) 선미(鮮味) : 신선하고 산뜻한 맛.
- 95) 산문(山門) : ① 산의 어귀. ② 절 또는 절의 바깥문.
- 96) 가관(可觀) : 가히 볼 만함.
- 97) 월출동산(月出東山) : 달이 동산에 뜬.
- 98) 명랑(明朗) :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함.
- 99) 유리세계(瑠璃世界) : 약사여래가 다스리는 정토(淨土). 부처나 보살이 사는, 번뇌의 굴레를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
- 100) 풍정(風情) : 정서와 회포를 자아내는 풍치나 경치.
- 101) 도연명(陶淵明) : 중국 동진의 시인(365~427). 이름은 잠(潛). 호는 오류선생(五柳先生). 자연을 노래한 시가 많으며, 당나라 이후 육조(六朝) 최고의 시인이라 평가됨.
- 102) 고소성외(姑蘇城外)한산사(寒山寺) : 당나라 시인 장계(張繼)가 지은 <풍교야박(楓橋夜泊)> 의 한 구절.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음. 月落烏啼霜滿天(달 지고 까마귀 우는데 하늘엔 가득 서리가 내리고) / 江楓漁火對愁眠(강가의 단풍나무, 고깃배 등불 마주하고 시름 속에 졸고 있네) / 姑蘇城外寒山寺(고소성 밖 한산사) / 夜半鐘聲到客船(한밤중 종소리가 객선까지 들려오네).
- 103) 풍교(楓橋) : 풍교(楓橋)는 지금의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 서쪽 한산사 부근에 있는 다리 이름임.
- 104) 소동파(蘇東坡) : 소식(蘇軾). 중국 북송의 문인(1036~1101). 자는 자첨(子瞻). 호는 동파(東坡).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적벽부> 가 특히 유명함.
- 105) 금산사(金山寺) : 중국 장쑤 성(江蘇省) 진산(金山)에 있는 절. 동진 시대에 건립되었으며, 소동파(蘇東坡)가 두었다는 옥대(玉帶)가 전함.
- 106) 옥띠 : 임금이나 관리의 공복(公服)에 두르던 옥으로 장식한 띠. 옥대(玉帶)와 같은 말.
- 107) 왕희지(王羲之) : 중국 진(晉)나라의 서예가(307~365). 자는 일소(逸少). 해서·행서·초서의 3체를 예술적 완성의 영역까지 끌어올려 서성(書聖)이라고 불림.
- 108) 소요편(逍遙篇)을 의논할 제 : 「소요편」은 『장자(莊子)』의 한 편명임. 왕희지가 지둔(支遁)선사를 만나 「소요편」에 대해 논의했을 때, 지둔의 견해에 감동하여 돌아가려 하지 않았던 일화를 가리킴.
- 109) 윤기(倫紀) : 윤리(倫理)와 기강(紀綱)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10) 측량(測量)없다 : 한이나 끝이 없다.
- 111) 암암(暗暗) :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함.
- 112) 전송(錢送) : 서운하여 잔치를 베풀고 보낸다는 뜻으로, 예를 갖추어 떠나보냄을 이르는 말.
- 113) 진중(鎭重) : 무게가 있고 점잖음.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